

폭 쉬고 더욱 강력해진 류현진, 사이영상 가시권

목 통증으로 인한 부상자명단(ML) 등재는 류현진(32·LA 다저스)에게 그야말로 휴가였다. 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류현진은 한층 더 견고해진 모습을 자랑했다.

1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외의 경기에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5피안타 4탈삼진 1볼넷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쳐 팀의 9-3 승리에 앞장섰다.

류현진은 지난 1일 '투수들의 무덤'

패)를 거두는 동시에 평균자책점을 1.53에서 1.45까지 끌어내렸다.

라이브볼 시대가 시작된 1920년 이후 류현진은 정규리그 개막 후 22경기 기준으로 역대 5번째 낮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1968년 밥 김슨(0.96), 같은 해 루이스 티안트(1.25), 1971년 비다 블루(1.42), 2005년 로저 클레멘스(1.450)가 류현진(1.451)보다 평균자책점이 낮았다.

류현진은 5월 중순부터 줄곧 평균자책점 1점대를 유지했다. 메이저리그를 통틀어 정규이닝을 채운 투수 중 류현진

어저는 7월26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을 통해 복귀했으나 통증이 재발해 7월30일 또 부상자명단에 등재됐다. 이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20경기에서 134⅓이닝을 소화한 슈어저는 9승 5패 평균자책점 2.41의 성적을 거뒀다. 이닝과 승수, 평균자책점에서 모두 류현진이 앞선다. 특히 평균자책점은 류현진이 1점 가까이 낮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과 비교해도 류현진이 월등하다. 디그롬은 24경기에서 148이닝을 던지며 7승 7패 평균자책점 2.68을 기록했다. 이닝과 탈삼진(189개)에서 류현진에 앞서지만, 평균자책점과 승수에서는 류현진이 압도적으로 우위다.

류현진이 앞으로 부상없이 꾸준한 활약을 이어간다면 아시아 투수 최초 사이영상이라는 새 역사도 꿈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동시에 자유계약선수(FA)

가 되는 류현진은 초대형 계약까지 넘볼 수 있다. 뉴스

목 통증으로 부상자명단서 휴식 이후 복귀

애리조나전 7이닝 무실점 호투 시즌 12승 수확

메이저리그 통틀어 평균자책점 1점대 '유일'

인 쿠어스 필드에서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친 뒤 목 부위에 가벼운 통증을 느꼈다. 부상이 잦았던 터라 우려도 있었지만, 본인과의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 모두 가벼운 부상이라고 강조했다.

열흘을 채우자마자 돌아온 류현진은 한층 강력해진 모습을 자랑하면서 이번 부상자명단 등재가 휴가나 다름없음을 입증했다.

올 경기에서 9승 무패 평균자책점 0.81의 강세를 이어갔다. 애리조나에 강한 면모도 유지했다. 이날 경기를 포함해 류현진은 올 시즌 애리조나전에서 3승 무패 평균자책점 0.45를 기록했다.

류현진의 아시아인 최초 사이영상 수상도 한층 더 가까워졌다. 류현진은 이날 호투로 시즌 12승째(2

외에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 중인 투수는 없다.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2위는 마이크 소로카(애블랜타 브레이브스)로 2.32를 기록 중이다. 류현진과 격차가 크다.

사이영상 레이스에서 경쟁자들과의 격차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는 잇단 부상으로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지

난달 14일 등 통증을 느껴 부상자명단에 올랐던 슈



2019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대회 오픈워터수영 55~85세 그룹 경기가 9일 전남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선수들이 출발하고 있다.

'환희와 눈물 감동 드라마'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대회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대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전체 참가자의 75%를 차지하는 경연 경기가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1일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3000여 명의 동호회원들이 참가하는 경연 경기는 12일부터 남부대 주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2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참가해 어떤 인간승리의 드라마가 쓰여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최고령자인 아마노 토시코(93·여·멕시코클럽) 선수는 13일부터 경기에 출전한다. 토시코는 13일 자유형 100m를 시작으로 14일 자유형 200m, 15일 자유형 50m, 17일 배영 100m, 18일 배영 50m 등 총 5개 종목에 나선다.

남자 최고령인 테네포 탄초(91·볼가리아)는 경연 8개 종목, 다이빙 3개 종목 등 무려 11개 종목에 출전해 노력의 과시한다.

탄초는 14일 다이빙 1m와 3m 스프링보드를 시작으로, 15일 자유형 50m, 16일 200m 계영 등 5종목, 17일 100m 배영 등 2종목, 18일 배영 50m에 각각 출전한다.

한국 출전선수 가운데 최고령인 조은영(81·여)씨는 15일 자유형 50m를 시작으로 모두 7개 종목에 참가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한국 남자 최고령인 조용란(77)씨

도 17일과 18일 200m와 50m 배영에 도전한다.

병마를 이겨내고 37년만에 풀로 되 돌아오는 70년대 한국 여자수영의 간판 최연숙(60)씨도 12일 자유형 800m를 시작으로, 13일 100m, 14일 200m,

목표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인간승리에 도전하는 이동현(29)씨도 13일 자유형 100m, 14일 배영 50m, 15일 배영 100m에 도전한다. 자폐장애 1급인 이씨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떨쳐내고 비장애인들과

대회 최고령 93세 아마노 토시코 5개 종목 출전

병마 이기고 37년만에 귀환한 최연숙씨도 도전

15일 50m, 18일 400m 등 자유형 5개 종목에 출전한다.

최씨는 70년대 중후반 무려 32차례나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신기록 제조기로 이름을 날렸다. 조기은퇴와 결혼, 투병 등으로 37년간 불을 떠나 있었던 그녀는 이번 대회에서는 800m 완주를

함께 당당히 그리고 즐겁게 레이스를 펼쳐겠다는 각오다.

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해 광주마스터스수영대회는 세계인들을 웃기고 울리는 감동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류현진 "ERA 1.45, 놀라운 일...많은 도움 덕분"

"20승 목표, 부상 없어야 달성 할 수 있는 기록"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자신의 평균자책점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외의 경기에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5피안타 4탈삼진 1볼넷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쳐 팀의 9-3 승리에 앞장섰다.

류현진은 시즌 12승째(2패)를 수확했고, 평균자책점을 1.53에서 1.45까지 끌어내렸다.

다저스가 브루클린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연고지를 이전한 이후 가장 낮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투수는 2015년 1.66을 찍은 잭 그레인키(현 휴스턴 에스트로스)다. 라이브볼 시대가 시작

된 1920년 이전까지 포함하면 루브 마커드가 1916년 거둔 1.58이 다저스 구단 역대 최저 평균자책점이다. 류현진은 이보다 낮은 평균자책점을 쓰고 있다.

류현진은 "놀라운 일"이라며 "팀 동료들을 포함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 덕분에 가능했던 기록이다. 계속 잘 준비해 지켜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평균자책점도 놀랍지만, 지난 6월29일 콜로라도와의 원정경기에서 4이닝 7실점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더 경이로울 터였다. 류현진이 올 시즌 2점이 넘는 자책점을 기록한 유일한 경기다. 그 경기를 제외한 21경기 평균자책점은 1.04에 불과하다.

지난 1일 '투수들의 무덤'인 쿠어스 필드에서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류현진은 다음날 목에 가벼운 통증을 느껴 부상자명단(ML)에 올랐다.

류현진과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가벼운 부상이라고 했고, 사실상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류현진은 한층 견고한 모습을 자랑했다.

올해 목표를 묻는 질문에 류현진은 "20승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건 부상이 없어야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이 인상적인 투구를 했다. 체인지업이 날카로웠고, 정확하게 던졌다"며 "류현진이 탈삼진을 많이 솟아내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땅볼과 빗맞은 타구를 많이 유도하면서 효율적인 투구를 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달, 로저스컵 정상...마스터스 1000시리즈 35번째 우승

이 대회 개인 통산 5번째 우승

라파엘 나달(33·스페인·2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로저스컵 우승을 차지했다.

나달은 12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에서 다닐 메드베데프(23·러시아·9위)를 2-0(6-3, 6-0)을 가볍게 물리쳤다.

2005, 2008, 2013, 2018년에 이어 이 대회 개인 통산 5번째 우승이다. 또 나달은 마스터스 1000시리즈에

서 통산 35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4대 메이저대회 바로 아래 등급인 마스터스 1000시리즈는 1년에 9차례 열린다. 마스터스 1000시리즈 최다 우승 기록은 나달이 가지고 있다. 노박 조코비치(32·세르비아·1위)가 33회로 뒤를 잇고 있다.

이번 대회까지 마스터스 1000시리즈에서 통산 381승을 거둔 나달은 378승으로 최다승을 기록 중이던 로저 페더러(38·스위스·3위)를 넘어섰다.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11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로저스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